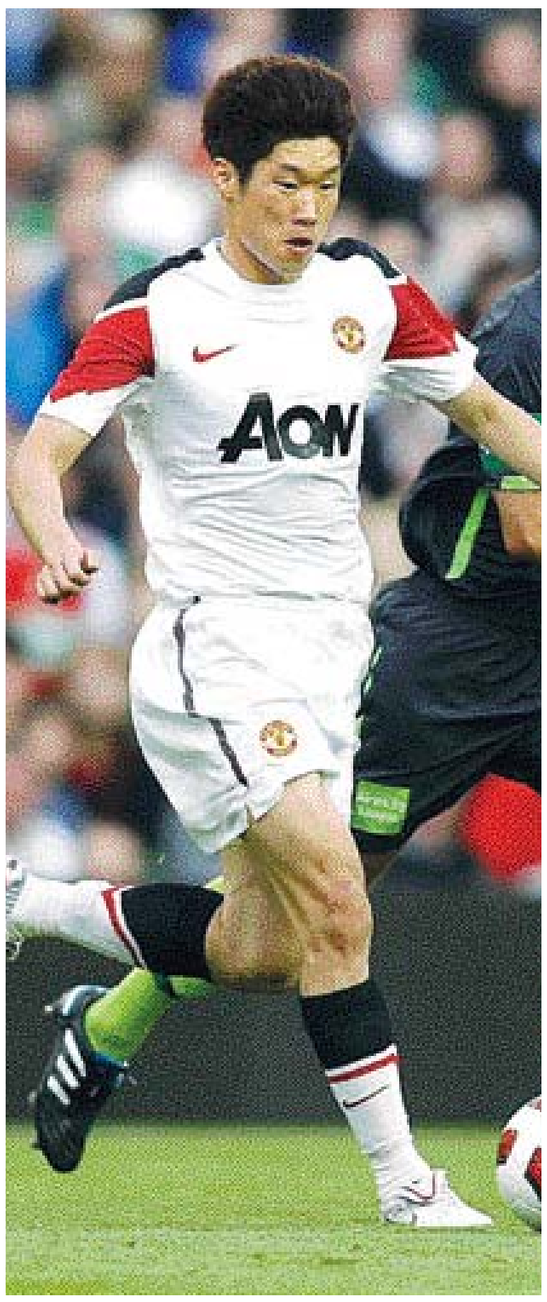
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兩朴 "개막축포 내가 쏜다"



박주영

한국축구의 주축인 '양박' 박주영(25·AS모나코)과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나란히 새 시즌을 시작한다.

먼저 박주영이 8일 새벽 4시(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리옹의 제를랑 경기장에서 열릴 올랭피크 리옹과 원정경기로 2010-2011시즌 프랑스 정규리그 개막전을 치른다.

이어 박지성이 같은 날 밤 11시 영국 런던 웸블리구장에서 첼시와 잉글랜드 커뮤니티실드 경기를 갖는다. 정규리그인 프리미어리그 개막에 앞서 열리는 커뮤니티실드는 지난 시즌 리그 우승팀과 FA컵 챔피언 간 단판 승부로 새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경기다. 지난 시즌 첼시가 프리미어리그와 FA컵 우승을 독차지해 이번에는 리그 2위 맨유가 출전하게 됐다.

지성-내일 밤 11시 첼시와 커뮤니티실드전

주영-리옹과 원정경기서 시즌 개막전 출격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사상 첫 원정대회 16강 진출을 이끈 박지성과 박주영은 지난달 소속팀으로 돌아가 새 시즌을 준비해 왔다.

프리시즌 매치에서 인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인 박지성은 리그 맞수인 첼시와 커뮤니티실드 출격을 준비 중이다. 박지성은 5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치른 아일랜드 프로리그 올스타팀과 친선경기(7-1 승)에서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64분을 뛰면서 두 골을 넣고 도움 한 개를 추가했다.

박지성이 맨유 유니폼을 입고 치른 경기에서 공격포인트를 세 개나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박주영은 일단 프랑스 리그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맞는다. 박주영은 지난 시즌 리그 8골, 컵대회 1골 등 모두 9골을 넣으며 모나코의 간판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일 홈에서 치른 올림피아코스 볼로스(그리스)와 평가전에서는 전반 6분 결승골을 넣어 모나코에 1-0 승리를 안겼다.

한편, 조광래 신임 축구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아 오는 11일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나이지리아와 친선경기에 참가하는 박주영과 박지성은 9일 오후 일시 귀국한다. /연합뉴스

기보배, 한국 양궁 샛별

〈광주시청〉

대표팀 선발전 연속 1위 이어 월드컵 개인전 결승 진출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에 샛별이 떠올랐다.

대표팀의 막내인 기보배(22·광주광역시청)다. 기보배는 그간 여자 대표팀 외부에서 변죽만 울리다가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베테랑 선수들을 따돌리고 혜성처럼 등장한 선수다.

기보배는 지난 4~5월 선발전에서 윤옥희(25·예천군청)와 주현정(28·현대모비스·곡성 출신), 김문정(29.청원군청) 등을 제치고 1위로 대표팀에 합류했다.

기보배는 이후 두 차례 열린 대표팀 평가전에서도 작년 세계선수권자이자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윤옥희와 주현정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기보배는 6일(한국시간) 미국에서 열린 국제양궁연맹(FITA) 월드컵 개인전 4강에서도 윤옥희를 세트스코어 6-2(2승2무)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월드컵 경험이 전혀 없는 선수로서 국제무대에서도 혜성급이다.

조은신 여자 대표팀 감독은 "기보배가 '재야'에 있다가 대표팀에 톱으로 들어오면서 대표팀 내에 신구 경쟁이 불 붙었다"며 "새 질서가 어떻게 잡힐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광주시 체육회 관계자는 "기보배가 서향순-주현정으로 이어진 지역 여자양궁 올림픽 금메달 계보를 이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 11월에 열린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소연 격려금 1000만원 받는다

축구협회, U-20 여자대표팀에 총 2억4700만원 지급

지소연(한양여대) 등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에서 한국축구 사상 역대 최고 성적(3위)을 올린 20세 이하(U-20) 여자 대표 선수들이 최고 1000만원의 격려금을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받는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독일에서 막을 내린 2010 FIFA U-20 여자월드컵에서 3위를 차지하고 귀국한 U-20 여자축구 대표팀에 총 2억47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대표팀을 세계 3위에 올려놓은 최인철 감독은 2천만원, 황인선 등 세 명의 코치는 각각 1500만원을 받는다. 선수들은 출전 경기 수 등 기여도에 따라 A, B등급으로 나뉘어 각각 1000만원과 600만원을 받는다. 6경기에서 8골을 넣어 우수선수격인 실버볼과 득점 2위상인 실버슈까지 차지한 공격수 지소연을 비롯해 주장인 중앙수비수 김혜리(여주대), 미드필더 김나래(여주대), 골키퍼 문소리(울산과학대) 등 주축 선수 14명이 A등급에 포함됐고, 나머지 선수 7명이 B등급에 속했다. /연합뉴스

조윤지 우승

KLPGT 볼빅 라일앤스코트 오픈

조윤지(19·한솔)가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T) 볼빅 라일앤스코트 여자오픈 J골프 시리즈(총상금 4억원) 우승을 차지했다.

조윤지는 6일 강원도 횡성군 청우골프장(파72.6천46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만 6개를 뽑아내며 최종합계 14언더파 202타를 기록했다.

2위 양수진(19.넵스)에 4타나 앞서 우승한 조윤지는 올해 정규 투어 입문 이후 첫 우승을 차지하며 신인왕 포인트에서도 이정민(18·삼화저축은행)을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다. 조윤지는 639점, 이정민은 527점이다.

/연합뉴스

김재수씨, 가셔브롬 1봉 올랐다

故 고미영씨와 약속 14좌 완등 안나푸르나만 남겨둬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을 이루지 못하고 숨진 고미영 씨와 약속을 지키고자 등반을 계속하고 있는 김재수(50·사진) 대장이 또 하나의 봉우리에 올랐다.

코오롱스포츠 챌린지팀은 김 대장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오후 10시 해발고도 7000m에 있는 캠프 Ⅲ를 출발해 5일 오후 1시 54분 가셔브룸 1봉(8천91m)에 올랐다고 6일 밝혔다.

코오롱스포츠는 특히 김 대장이 손병우 씨와 함께 캠프 3에서 다른 산악인들이 애용하는 기존 루트가 아닌 새로운 루트를 개척해 정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김 대장과 손 씨는 현재 베이스 Ⅲ를 거쳐 하산하고 있으며 몸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장은 이로써 히말라야 8천m급 13개 봉우리에 등정해 14좌 완등까지는 안나푸르나 1개만 남겨두게 됐다. 한국에서 14좌를 완등한 산악인은 엄홍길, 박영석, 한왕용, 오은선 대장 등 4명이다.

김 대장은 히말라야 14좌를 함께 완등하기로 약속한 고 씨의 사진을 가셔브룸 1봉 정상에도 심어두고 왔다.

그는 2007년 5월 에베레스트를 시작으로 고 씨와 함께 14좌 완등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나 고 씨가 작년 7월 낭가르밧(8천125m)을 함께 등정한 뒤 하산하다가 사고로 숨졌다. 김 대장은 고 씨가 사망하자 작년 가을부터 남은 봉우리에 도전하기 시작했으며 안나푸르나 등정을 한 차례 실패하고서 가셔브룸 2봉과 1봉을 차례로 올랐다. 그는 눈사태가 많은 가을을 피하고 고 씨와 함께 등정을 시작한 지 만 4년이 되는 내년 5월께 14좌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안나푸르나에 재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부음

▲권광임씨 별세 오형석·정현씨 모친상=발인 8일(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문제중씨 별세 일신·구희·영희씨 부친상=발인 8일(일)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김명호씨 별세 병훈·병준·경순·용순·경애·영미·윤이씨 부친상=발인 7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국은표(전 석산고 교장)씨 별세 민석(전남대치대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교수)·민철(손불종로약국 약사)·민정(미산초 교사)씨 부친상 박균철(장수보건소 의사)씨 빙부상=발인 7일(토) 전남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20-6981.

▲손상진씨 별세 영채·기태·성미씨 부친상=발인 7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임재술씨 별세 유진씨 부친상=발인 7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7분향소 062-231-8907.

▲최삼기씨 별세 김광웅씨 모친상=발인 7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故 박명호 님(남/85세)
子/子婦 박정남/양 은, 박서연/양미숙 호실 201호
女/壻 박정숙/김영모, 박창숙/김미수 발인 8월07일
박은숙/정봉한 장지 담양천주교묘지

故 김성중 님(남/81세)
子/子婦 김선창/김혜숙, 김선독/박옥남 호실 301호
김선규/김봉수 발인 8월08일
女/壻 김선님/문병규, 김선예/김연수 장지 영락공원
김선신/김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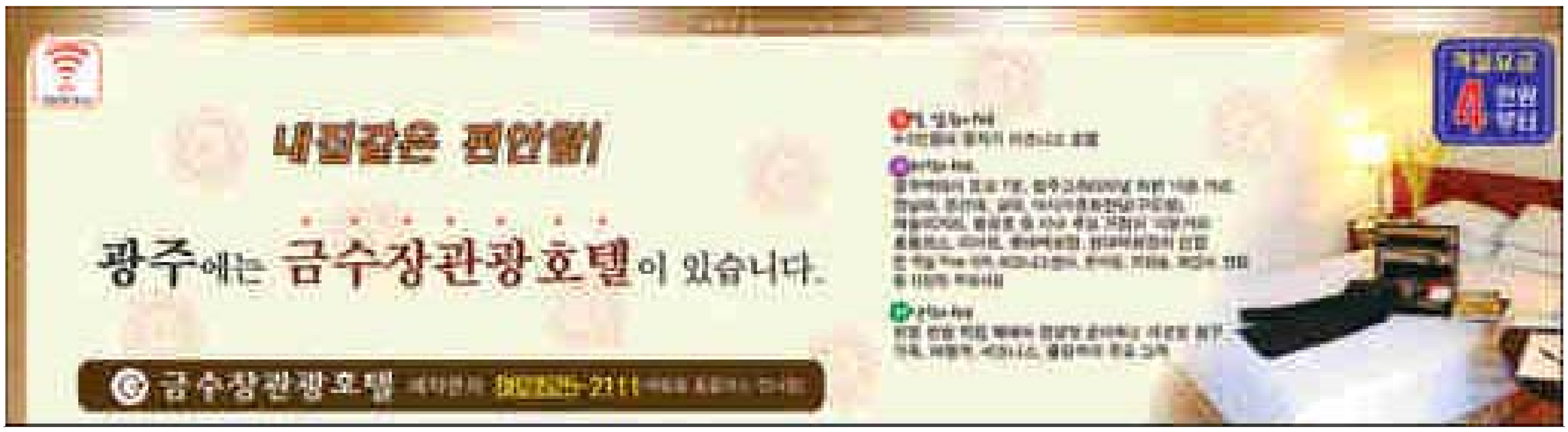
故 최광동 님(남/63세)
子/子婦 최병채 호실 401호
병호/이미영 발인 8월08일
女 최옥경 장지 영락공원

故 박재호 님(남/81세)
子/子婦 박현수/최수옥 호실 101호
박현우/김영선 발인 8월08일
女/壻 박현진/이명수 장지 영락공원

謹 弔

마음까지 편안한 - ☎ 062)227-4000
금호장례식장
넓은주차장 - 정갈한 음식!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弔

▲김근석·수복 씨 부친상 발인 : 8월8일(일) 9시 장지 : 담양군 남면 선영 연락처 : 250-4410
▲심상희·상희씨 모친상 최철수·장행진·김호현·서용길 씨 빈모상 발인 : 8월8일(일) 9시 장지 : 광산구 평동 선영 연락처 : 250-4409
▲전규용·규일·규봉 씨 모친상 김병철·최삼룡 씨 빈모상발인 : 8월7일(토) 10시 장지 : 담양천주교묘역 연락처 : 250-4407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